

한라시론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세월은 고장도 없이 흘러 어김없이 월동채소 파종기가 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파종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각자는 채소 한 포기마다 꿈을 심으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의 소비는 증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의 변화가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은 농업인들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다.

2019 농업전망에서 보면 채소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00년 113kg

채소류 면적을 줄여 가격을 높이자

에서 2018년 90kg으로 감소하였고, 지급률은 86%에 불과 하였다. 소비형태도 변화하여 과거에는 원물 중심의 소비였으나 지금은 반가공형태의 구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는 국산보다 매입단가가 저렴하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김치와 당근은 수입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채소 소비량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농산물 시세가 낮아 처리의 문제가 발생하면 농업인들의 정보가 부족하여 생산량 조절에 실패한 것처럼 보는 측면도 있으나 농업인들이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이용하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월 농업관측정보를 발표 하고 있지만 정보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지난 6월 발표한 농업관측에 의하면, 고랭지 배추는 주산지역의 6-9월 평균기온이 23℃ 이상인 날의 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해 발생이 많고 김치의 수입량은 5월까지 전년 대비 5%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서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대비 8%가 감소하며, 양배추, 양상추, 감자로 작목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고랭지 무는 전년보다는 3%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재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랭지 당근의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대비 19% 증가 하였으며, 파종이 끝나 초기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근 재배면적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중국 북경선산 당근에서 '바나나 뿌리썩이 선충'이 검출되어 수입 금지 조치되어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산동성 노지 봄 당근은 면적이 증가하고 작황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랭지 양배추의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대비 13%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유는 봄 양배추의 작황부진으로 높은

시세를 보인 영향으로 보고 있다. 고랭지 채소와 제주산 월동채소는 생산시기가 다르지만 물량이 남으면 월동채소 출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배추를 줄이고 양배추, 감자로 전환 하는 것과 양배추, 당근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은 제주산 월동채소의 가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면적은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겠다.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폐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각종 농산물이 다 적용 하다 보니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장 안정적인 가격 보장을 위해서 인건가는 파종 전 도매시장과 생산자 단체가 품목별 물량과 가격을 계약하여 출하하는 독일식 유통체계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살맛나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사설

학교 비정규직 파업, 학생들 피해 안타깝다

제주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정대로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급식종단에 따른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첫날에는 도내 172개 학교 중 73개교가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이 가운데 57개교는 빵·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12개교는 도시락 지참, 3개교는 단축수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1개교는 현장학습으로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4일에는 4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5일에는 급식 중단이 29개 학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업 기간 단축수업을 결정한 학교는 남원중·효돈중·오름중, 중문고(기말고사일)입니다. 이와함께 돌봄교실 214개 교실 중 90개 교실의 수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 대책으로 ▷학생별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 제공 ▷단축수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이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일터로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차별보다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일하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파업에 이르기까지 교육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제시한 대책도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른들 때문에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선 학교에서 파업사태가 벌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화해야

지난 6월 제출된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2개월 이내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4년만에 기초지자체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안을 요구해온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동의안은 3개월 여만에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고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려곡절이 많았습니다. 민선 6기에서 가동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대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권고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 다. 민선7기 출범이후 다시 기초지자체 부활 논란에 휩싸였고 제주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방향을 결정하자 주민투표 여부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면 제주자치도는 202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안으로 정부에 공식 제출된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편익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입법절차가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편집국 25시

치매안심 제주? 이제 시작이다



김지은
편집부 차장
jieun@ihalla.com

"치매 걱정 없는 힐링 제주" 연구사업 박차. 제주도가 지난달 2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런 제목이 달렸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소식이 반가웠던 건 제주지역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에 더해 치매 환자 가족과의 만남이 떠올라서다.

했다. 제주도가 말한 대로 '지역에 맞는 치매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들이 짊어져야 했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거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건 지도 비슷한 시간이 흘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간 제주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도내 보건소 6곳에 치매관리사업을 맡는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4월 성산읍 신산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치매안심마을을 7곳이 지정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전국적인 움직임이지만 빠른 고령화 속에 치매가 사회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선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치매 조기 발견을 가로막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데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도 이제 막 시작단계에 그친다. '치매 걱정 없는 제주'를 위해선 한 마을을 넘어 제주사회가 치매를 이해하고 함께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 등이 필수적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뉴스-in

“왜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하느냐”

제주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제주시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청렴·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한 내부 직원을 강사로 활용해 '더 투명하고 보다 청렴한 제주시'라는 주제로 진행중.

제주시 관계자는 "공의제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시가 보다 청렴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노인학대 요양원 처분 촉각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 노인의 '방임 학대' 관련 청문이 지난달 하순 진행된 가운데 행정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촉각.

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이어 지난 1일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작년에 이은

2차 노인학대인 점을 감안해 시설장 교체 처분을 통보.

시 관계자는 "방임행위의 경우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 의견을 받은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오 의원, 도교육청 비판

○...오대익 교육의원이 제주도교육청과 IBO의 MOC 체결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양치기 소년'에 빗대어 비판.

오 의원은 3일 임시회에서 "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성산고를 해시교로 전환 추진하다가 4년이 지난 뒤 논의가 사라졌다"며 "IB도 자꾸 체결이 미뤄지고 있지만, 체결했다고 발표해 도민들은 다 된 줄 알고 있다"고 지적.

오 의원은 이어 "왜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하느냐"며 "만약 7월에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위스에 달려가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부고
김용수(인대마을 회장) 어머니
제주양씨 복손(향년 86세)께서
2019년 7월 3일 03시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4일(목)
▶발인일: 2019년 7월 5일(금)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제주시 월평동 선영
남편 김상섭
아들 김용수 며느리 이경희
완수 이정임
용호 강윤경
딸 김경미 사위 심영식(배)
경희 김기운
진성 이성희
* 연락처: 김용수 010-4158-1710
김완수 010-3691-0452
김용호 010-4691-1450
김경미 010-6326-3348
김기운 010-4693-9732
김진성 010-3898-256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화: 064-796-6947
핸드폰: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당사에서 제조하는 펠백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허가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펠백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 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중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정 중후균·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처기업·펠백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에디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